

평창공과 학림공 공적비 건립 만장일치 추인

4월 6일 시조 및 낭중공 춘향제 봉행 후 제막식 예정

2019년도 제1차 상임위원회가 지난 2월 20일(수) 11시 서울역그림(식당)에서 개최되었다. 권해욱 대종회 회장을 비롯한 권영의 수석부회장, 권영성 상임부회장, 권길상 부회장, 권인택 파종회장연합회 회장, 권오신 부회장, 권오덕 감사, 권경석 전 국회의원, 권영호 부산총친회장, 권영하 영등포총친회장, 권태복 금천총친회장, 권오환 제주총친회장, 권건중 사무총장, 권태훈 총무국장 등이 참석하였다. 특히 권오환 제주총친회장은 제주도 족친들을 대표하여 상임위원으로 선임되어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였다.



권오환 제주총친회장(가운데) 상임위원 선임

상임위원회는 권건중 사무총장의 사회로 시작되었다. 권영성 상임부회장은 총 27명 중 12명이 참석하고 15명이 위임장을 제출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고 개회를 선언하였다. 이어서 시조에 대한 망배를 하였다. 권해욱 회장은 상임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위촉된 권오환 제주총친회장에게 선임장을 수여하였다. 권해욱 회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상임위원회는 올해 들어 첫 번째 회의이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원근에서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하며 여러분 가정에 평안과 건강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대종회에서는 지난 1월 11일 청와대와 국회의장에게 권율도원수 행주대첩제를 국가행사로 격상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런 사실을 핸드폰 메시지와 종보를 통해 이미 알려 드린 바 있다. 매우 고무적이고 보람된 일이 아닐 수 없다.

100만 족친들이 일치단결하여 협조해 주신 덕택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대종회에서는 이와 더불어 평창공 권웅 선생과 학림공 권방 선생의 공적을 기리는 공적비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절차, 회의 과정 등을 거쳐 여러분 뜻에 따라 장소와 규모 등을 결정하여 보고 드리고 공적비를 세울 예정이다. 제례위원회에서 어느 장소, 어떤 규모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강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실천되었던 시조 묘소를 찾은 평창공과 기발한 기지로 시조 묘역을 지킨 학림공의 공적을 기리는 뜻 깊은 일이라서 100만 족친의 마음이 하나로 합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취지에서 대종회에서는 대표성 있는 회의를 개최하여 그 뜻을 반영하기 위해 3월 7일 안동에 파종회장연합회 의회 회의를 소집하여 현지답사와 장소 규모 등을 논의한 후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4월 6일 춘향제 봉행 후 제막 시에는 일본관서총친회, 미국뉴욕총친회, 중국총친회 등지의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족친

들도 초청할 예정이다.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권태훈 총무국장은 현안 사항을 보고했다. 현안사항은 첫째, 권율도원수 행주대첩제 국가행사로 격상하는 건의서 제출 건, 둘째, 2월 7일 삼대사묘와 태사묘 정찰하여 보고 드리고 공적비를 세울 예정이다. 정릉물건 소송결과 내용, 넷째, 3월 7일 안동사무소 회의실에서 파종회장연합회 회의를 개최하는 문제, 다섯째, 총장공 권율도원수 제426회 행주대첩제 기념행사에 관한 사항, 여섯째, 3월 28일 10시 삼대사묘 춘향제 봉행 문제, 일곱째, 4월 6일 시조 및 낭중공 춘향제 봉행 등이다. 총무국장의 보고가 끝나자 권해욱 회장은 평창공과 학림공께서 시조 묘소와 관련하여 공적이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때문에 대종회에서는 대종회가 주관하여 독지가의 협조를 얻어서 가능한 춘향제 때 제막식을 가질 계획이다. 이 자리는 공적비 건립

을 추진하는 자리이니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의 수석부회장은 공적비 건립을 추진하는 자리인 만큼 다 아는 사실이지만 두 분 공적비를 세우는 취지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줄 것을 사무총장에게 요청했다. 권건중 사무총장은 두 분의 공적을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소개했다. 평창공(平昌公) 권웅(權雍, 추밀공파 17세): 500여년간 실천되어 왔던 안동권씨 시조 태사공의 묘소를 탐사하여 심득(尋得)하는 불후불망(不朽不忘)의 업적을 남김. 학림공(鶴林公) 권방(權訪, 추밀공파 28세): 평창공의 외손인 풍산유씨 가문에서 시조 묘소를 돌보면서 분묘 200여기를 쓰고 소유권을 주장하자 안동권문을 대표하여 경상감사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특유의 기지로 임야를 찾는데 크게 기여함. 권인택 회장은 안동에서 보학 교양관좌를 할 때는 평창공과 학림공 이외에 또 다른 선조 한 분을 추가하여 강의를 한다고 말했다. 평창

3월 7일 안동사무소에서 파종회장단협의회 회의 개최
 평창공과 학림공의 공적비 건립 장소와 규모 논의 예정

평창공과 학림공의 공적비 건립에 대한 안건이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이에 따라 3월 7일 안동사무소에서 평창공과 학림공의 공적비를 어디에 어떤 규모로 세울 것인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파종회장단협의회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권해욱 회장과 권인택 파종회장단협의회장은 제1차 상임위원회 때 이미 회의 개최를 결의한 바 있다. 안동권문의 파종회장단이 협의하는 사안인 만큼 다양한 의견을 고루 수렴하고 그 뜻을 반영하여 평창공과 학림공의 공적비가 안동권문의 지혜와 대화함 속에서 건립될 수 있도록 일치단결된 모습과 중지를 모아줄 것으로 기대된다. 당대에는 물론이고 후손들에게



공적비 기본

불후불망의 공적비가 되는 것은 물론 안동권문의 정신문화의 상징물로 세워져 문화재로까지 승화시킬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획과 위대한 협의가 있기를 바란다.

3월 임원 선임 및 회비 납부 내역	
<임원 선임>	
상임위원 : 권오환(제주지역 총친회장)	
이 사 : 권영두(서울), 권석주(광주)	
<부회장 회비>	
권혁찬(회장)	500,000원
<총무위원 회비>	
권오진(안동)	200,000원
권영환(음성)	200,000원
<이사 회비>	
권기성(서울)	300,000원
권두현(수원)	300,000원
권용기(대전)	300,000원
권영갑(수원)	300,000원
권영록(합천)	300,000원
권순배(안산)	300,000원
총계 : 2,700,000원	
안동권씨대종회	

제426회 총장공 권율도원수 행주대첩 기념행사 개최

권율도원수 행주대첩제가 국가행사로 격상될 수 있도록 총결기하자!!!

총장공 권율도원수 행주대첩 기념행사가 3월 14일 총장사 등 행 주산성 일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지난 1월 11일 행주대첩 기념행사를 국가행사로 격상하는 건의서를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문화상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직후 맞이하는 기념행사로서 각별한 행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까지 정부에서 공식적인 답변은 없는 상황이지만 이렇듯 안동권문의 100만 족친은 행주대첩 기념행사에 대해 참석하여 권율도원수 행주대첩 기념행사가 반드시 국가행사로 격상될 수 있도록 총결기할 필요가 있다. 이번 총결기는 안동권문의 단합된 힘과 응집력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어 역사 재평가의 초석이 되리라 고 본다.

제426주년 행주대첩 기념행사



100만 족친 여러분!!!
권율도원수 행주대첩제 국가행사 격상은 정당한 역사 재평가입니다.
행주대첩 기념행사에 구름처럼 운집하여 총결기합시다.
모이자! 보여주자! 안동권문의 저력을!

- 일시 : 2019.3.14.(목) 오전 10시
- 장소 : 행주산성 총장사
- 문의 : 행주산성관리사업소 031-8075-4642~4

안동권씨 대종회 회장 권해욱